

세계적 양산의 환상적인 골프경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탄력적인 그린피 시스템 운영

- 인터넷회원 예약시
- 평일 최대 3만원, 주말 최대 5만원까지 할인가능
-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 전남 새 사령탑 박항서씨 확정

2002년 한일월드컵축구 당시 히딩크호의 4강 신화 도우미로 공을 세운 박항서(48·사진) 전 프로축구 경남FC 감독이 전남 드래곤즈 새 사령탑으로 확정됐다.

전남 구단은 27일 "지난 7일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발탁된 허정무 감독의 후임자를 물색한 끝에 박항서 전 경남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지난 달 경남FC를 떠났던 박항서 신임 감독은 이날 오후 광양시 전남 구단 사무실에서 계약서에 최종 사인했다. 계약 기간은 2년이고 연봉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양측 합의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

전남은 그동안 지역 출신 감독 영입도 검토했지만 내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와 K-리그 등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큰 경기에서 역량을 검증받은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 박 감독을 최종 낙점했다.

또 박 감독이 2003년 포항 스틸러스에서 수석코치를 지낸 경력도 포스코 계열사인 전남에 새 동지를 맞게 된 배경으로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남 산청출신인 박 감독은 경신고와 한양대를 졸업한 뒤 국가대표 2진 선수로 뛰었고 1970~80년대 청소년대표와 국가대표를 거쳐 1989년 럭키금성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다. 1994년 미국월드컵 대표팀 트레이너, 수원 삼성 2군 코치를 거쳤고 2002년 거스 히딩크 감독 밑에서 대표팀 코치를 지내면서 한국의 '4강 신화'에 힘을 보탰다.

2002년 부산아시아인간인 대표팀 감독을 맡기도 했던 박 감독은 포항 수석코치를 거친 뒤 경남 창단과 함께 K-리그 사령탑으로 활약해왔다.

박 감독은 올해 경남FC를 6강 플레이오프에 올려놓는 등 불공을 일으켰지만 구단 내 갈등에 휘말려 내년 8월까지 계약 기간을 남기고 퇴진하는 불운을 맞기도 했다.

## “대한축구협회장직 내년까지만 맡겠다”

정몽준 회장



“내년 말까지 마무리를 하고 2009년 초 물러나겠다. 후임자는 축구를 사랑하고 신뢰를 줄 수 있는 분이 왔으면 한다.”

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사진)이 새해 인사를 겸해 내년을 끝으로 16년 간의 축구 수장직을 마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회장은 27일 대한축구협회 홈페이지(www.kfa.or.kr)에 올린 '2008 새해 소감'에서 1993년 1월 취임 이후 네 번 연임해온 축구협회장으로서 소회를 전했다.

그는 “42세에 취임해 15년이 지났다. 내 삶의 중요한 시기를 한국 축구에 함께 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정몽준 회장은 “‘독배’, ‘무덤’으로 불리는 대표팀 감독 못지않게 축구협회장도 어려운 자리”라며 “1994년에 월드컵 유치를 시작했을 때 배경과 동기를 의식하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되지도 않을 일을 하고 다녔다며 비난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했다.



27일 오전 영국 타인워어주 선덜랜드의 스타디움 오브 라이트에서 열린 2007~2008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 선덜랜드와 원정경기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오른쪽)이 선덜랜드의 댄 화이트헤드(왼쪽)를 제치고 드리블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돌아온 박지성 파워 넘쳤다”

### ■ 허정무 감독 해외파 평가

7회 연속 월드컵축구 본선진출의 중책을 맡은 허정무(52) 축구대표팀 감독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고 해외파들의 활약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허 감독은 27일 서대문구 흥인동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린 '2007 대한축구협회 지도자 세미나'에서 특강을 마친 뒤 “부상을 당했던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오랜만에 출전했다. 몸 상태가 완전히 회복됐다는 증거”라며 “이영표(토트넘)는 항상 자기 몫을 해주는 선수다. 과감성이 조금 떨어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실기현도 전과 달리 적극성이 좋아졌다.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자세가 엮보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동국(미들즈브러)에 대해선 아쉬운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허 감독은 “팀에서 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팀에서 잘 뛰기만 한다면 징계 철회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 영표·기현 ‘적극적’... 동국은 ‘글썸’

허 감독은 특히 “해외파들의 대표팀 소집훈련 차출 문제는 민감한 사항”이라며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원정과 홈 경기의 차이는 물론 경기장 상황에 따라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다. 또 시차 문제와 국제축구연맹(FIFA) 차출규정도 종합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동국의 공백으로 한층 어려워진 공격진 운영 방안에 대해선 “남은 스트라이커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처음 태극마크를 달게 되는 선수도 나올 것”이라며 “누구에게나 기회는 열려있다. 하지만 팀을 갑자기 바꿀 수 없는 만큼 어리거나 생소한 선수는 극소수에 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감독은 또 “올림픽대표팀 소속 선수들도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올림픽대표팀의 스페인 전지훈련에도 코칭스태프를 파견해 선수들의 상태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허 감독은 내년 2월 귀국되는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축구대회 3차 예선에서 활약할 태극전사 선발의 기본 요건으로 정신력과 체력을 강조했다.

허 감독은 “현재 K-리그가 끝난 뒤 선수들이 휴식기에 들어간 상태여서 컨디션이 많이 떨어져 있다”며 “올해 K-리그에서 보여준 선수들의 경기력을 바탕으로 선수 선발에 들어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코칭스태프들이 직접 훈련장을 찾아다니면서 선수들의 상태를 점검한 뒤 50명의 예비명단 가운데 육성을 골라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영표〉



〈설기현〉

### 박지성 후반 35분간 출전 맨유 14승째...단독선수로

박지성(26·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이 드디어 그라운드에 돌아왔다.

박지성은 27일 오전 영국 타인워어주 선덜랜드의 스타디움 오브 라이트에서 끝난 2007~2008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 선덜랜드와 원정경기에서 후반 12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대신 투입돼 후반 인저리타임까지 35분 간 그라운드를 누볐다.

지난 3월31일 블랙번전 이후 무릎 수술과 오랜 재활 과정을 거친 박지성은 270일 만에 복귀전을 치렀다.

박지성은 오랜만에 돌아온 점을 의식한 듯 적극적인 손짓으로 동료의 패스를 요구했고 특유의 왕성한 활동량을 보였다. 하지만 이미 승패가 걸린 시점에 투입된 탓에 전반적으로 맨유 선수들의 집중력이 떨어졌다.

박지성은 투입되자마자 3분 만에 공격 포인트를 올릴 뻔했다. 박지성은 후반 15분 중앙 미드필더 마이클 캐릭이 미드필드에서 전방으로 볼을 찌르자 아크 쪽으로 드리블 돌파를 했고 왼쪽에서 달려들던 나니에게 결정적인 스투 패스를 내줬지만 나니의 마무리 슛이 골 포스트 오른쪽으로 빗나가 무위에 그쳤다.

맨유는 선덜랜드를 4-0으로 대파했다. 2위를 달리던 맨유는 14승3무2패 승점45를 기록, 이어 열린 경기에서 포츠머스와의 0-0으로 비긴 아스널(13승5무1패 승점44)을 밀어내고 중간순위 단독 선두로 복귀했다.

한편 이동국(28·미들즈브러)도 세인트앤드류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버밍엄시티와 원정경기에서 후반 제레미 알라리아에 교체 투입됐다. 미들즈브러는 버밍엄시티에 0-3으로 완패했다.

### 퍼거슨 감독 “왕성한 활동” 만족

박지성(26·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이 9개월만의 복귀전에서 범함없이 왕성한 활동량을 선보이자 알렉스 퍼거슨 맨유 감독이 큰 만족감을 표했다.

퍼거슨 감독은 27일(한국시간) 맨유 공식 홈페이지에 실린 인터뷰에서 “기쁘다. 박지성에게 이날 선덜랜드전은 매우 중요한 경기였다. 드디어 돌아왔고 30분 이상을 소화했다. 우리 모두 기뻐하고 있다”고 말했다.

퍼거슨은 이어 “박지성의 활동량은 타고났다. 동료가 볼을 패스하면 그는 움직인다. 박지성은 이 때마다 최고의 재능을 보여줬고 오늘 펼친 플레이는 그러한 예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 재미동포 출신 조성문 美 쇼트트랙 국가대표

“미국 국가 대표선수가 돼 무엇보다 기쁩니다. 오는 2010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리는 동계 올림픽을 목표로 하루에 6~7시간씩 맹훈련해 반드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싶습니다.”

지난 21~23일 열린 미국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된 조성문(미국명 사이먼 조) 선수가 밝힌 소감이다.

재미동포 출신으로 미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된 것은 조 선수가 처음이다. 조 선수는 올해 16세로 이제까지 선발된 미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를 가운뎃가장 어린이다.

그는 지난 주말 유타 주(州) 솔트레이크 시에서 열린 미 쇼트트랙 챔피언십 및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아폴로 안톤 노보 등 세계 최고의 기량을 자랑하는 선수들과 경쟁을 벌여 종합순위 6위로 국가대표에 뽑혔다.

이번 국가대표 선발전은 4종목(500, 1000, 1500, 3000m)의 종합점수를 합산해 6위까지 선발했다.

조 선수는 그동안 주니어 선수로는 미국에서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최강자로 아직까지 전 종목 신기록을 갖고 있는 최고 유망주로 꼽혔고 작년에는 주니어 국가대표로 출전, 월드주니어 대회에서 은메달을 딴 적이 있다.

미국 대표팀을 지도하고 있는 한국국가대표선수 출신의 장권욱 코치는 “조 선수는 개인적으로 한국 선수들이 비교적 약한 500m를 잘 타며 굉장한 순발력을 갖고 있다”면서 “키 180cm, 몸무게 55kg으로 쇼트트랙 선수로는 이상적인 체격조건에 굉장한 파워와 두뇌플레이를 하는 장점까지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현재 미국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감독은 전재수 전 한국여자 국가대표팀 코치가 맡고 있다.

## 흥국생명 6연승 현대건설 7연패

NH농협 V리그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가 현대건설 그린폭스를 7연패 수렁으로 밀어넣으며 파죽의 6연승을 달렸다.

흥국생명은 27일 수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NH농협 2007-2008 V-리그' 여자부 2라운드 경기에서 김연경(26득점)과 황연주(20득점)의 '좌우 쌍포'를 앞세워 한유미(27득점)가 분전한 현대건설을 세트 스코어 3-1(28-26 25-16 26-28 25-19)로 꺾었다.

이로써 흥국생명은 막강 화력으로 개막전 패배 후 패조의 6연승 휘파람을 불면서 6승 1패를 기록, 선두 KT&G(6승)를 바짝 추격했다.

반면 현대건설은 주전 세터 한수지 대신 김재영을 선발로 투입했고 한층 단단해진 조직력을 보였지만 노련미 부족으로 7연패에 빠져 최하위에 허덕였다.

흥국생명이 첫 세트를 유스 끝에 잡은 것이 결정적이었다.

흥국생명은 현대건설 한유미의 스파이크에 당하면서 시소게임을 펼치다 22-20에서 한유미의 밀어넣기 2점 백어택에 허를 찔리고 김연경의 후위공격이 티파니(18득점)에 막히면서 20-23으로 위기에 몰렸다.

그러나 마리의 매서운 공격으로 23-23 동점 균형을 맞춘 뒤 유스에 들어갔고 26-26에서 황연주와 김연경의 연속 스파이크로 접전을 마무리했다.

골프·연도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독펠리 회원권**

골프장	시세/매입	골프장	시세/매입
평수	3,500	주차	1,800
남권	4,200	주조	2,400
클럽	6,500	도회	3,000

상위 문의 (062)351-0095